

TUNE

기존의 차량이 가진 성능을 끌어올리거나, 외관상 변화를 주기 위해 자동차에 가하는 모든 작업. 엔진, 배기구와 기타 외부장착품, 도색 및 래핑은 물론이고 차량 인테리어나 내비게이션 매립, 블랙박스 장착, 튜닝과 같은 작업들 또한 자동차 튜닝의 범주에 들어간다.

TS
MAGAZINE

VOL. 76

2024. JAN + FEB

자동차에도 개성을
부여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해

TS

MAGAZINE
2024. JAN + FEB

VOL
76

ISSN 3022-5213
9 773022 521006





TUNE

발행인 권용복(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행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발행일 2024년 2월 15일 제76호 격월간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

기획·디자인·제작 칼리그램 (www.calligrame.com)

인쇄 좋은사람들

구독·취소 요청 02,335,7636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하라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TS매거진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강령 및 잡지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레고 그룹의 승인 또는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 정기간행물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웹진



유튜브



06

President's Message

신년사

MESSAGE

08

새해 소망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새해 소망

10

TS 포커스

튜닝안전기술원/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14

TS 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 외

16

TS 인터뷰

자동차에도 개성을 부여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해
용인자동차검사소 박병상 부장



20

TS Team터뷰

축구 동호회의
'골을 때리는 그녀들'

TOGETHER

24

칼럼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

28

스페셜 테마_이야기

튜닝 브랜드, 스트리트 컬처를 지배하다

32

스페셜 테마_사람

사람과 차를 조율하는 지휘자
경기북부경찰청 문성준 경위



36

슬기로운 교통생활

어디까지 꾸며도 되나요?
차꾸 Do & Don't

38

TS 메이트

비행기, 자동차 애호가라면
꼭 들러야 할 문화 체험 공간
오창휴게소(하남방향)



40

T식백과

저 여기 있어요!
차는 전조등으로 손 번쩍!

42

TS 이슈

대한민국 완성차 · 전자 기업
CES 2024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보이다

46

GLOBAL 이슈

알래스카 항공 사고,
보잉의 '속전속결' 원인 됐나

INSIGHT

52

여행을 떠나요

문화와 낭만이 넘치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시 마포구

58

트렌드 트래킹

사장님이 없어요!
인기를 유인하는 '무인' 매장

62

심, 표지판

교통사고 이후 마음 챙김,
어떻게 해야 할까?

64

TS툰

이륜차 승차 시 주의사항

TALK & SMART

66

TS상식미당

적색 점멸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68

독자와의 수다

내 자동차에 튜닝을 한다면?

70

TS 퀴즈

TS 매거진과 함께 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TS매거진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용복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청룡(靑龍)의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의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TS매거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도 1982년 4월 <교통안전지>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 42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도로·철도·항공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삼는 국내 최고의 종합교통안전 전문기관입니다. 급변화하는 교통사고 패러다임 속에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공단은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의 영역을 넘어서서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홍성부품인증센터」, 「튜닝안전기술원」을 준공하는 등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한 것입니다. 공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관심에 귀 기울이고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TS매거진>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교통안전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독자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전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새해 소망

정리. 편집실



7월에 태어날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고성재 대리_첨단검사전략처



새해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

최서연 주임_시흥드론교육센터



교통안전을 목표로 힘써주시는
공단 직원 분들 모두
건승하시고요,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는 꼭 장가 가즈아!!

김광현 조교수_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운영처



2024년 갑진년은
건강하고 행복한, 모두에게 값진
일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진혁 주임_제주검사소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더 건강하게!

이권영 과장_검사운영처



새해에는 채우기 보다는 비우면서
행복을 찾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을 위해)똥똥한
뱃살, (관계에서는)나를 괴롭히는
사람, (대화에서는)불필요한 말,
(생각 속)근심, (공간에서는)쓸모없는
물건, (감정에서는)부러움,
(일에서는)불필요한 일들을 쏙쏙
빼내고 그곳을 건강과 행복으로 꽉꽉
채우는 한해가 분명히 될겁니다. ㅎㅎ

박정식 교수_교통안전교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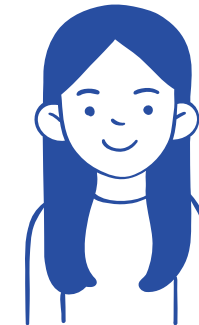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서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과 식단을 조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동철 대리_재정회계처



2024년에는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임나현 주임_부품연구처



2024년 청룡의 해인만큼
용의 기운을 받아 가족과
친구들, TS 직원 분들 모두
건강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0명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시은 연구원_모빌리티정책처



워라밸이 아니고 라워밸입니다.
늦기 전에 라이프를 먼저 챙기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최병호 처장_인천본부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웃는 일이 많아서 얼굴에 밝은 표정이
많아지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 일이 순조롭게 풀려
온 가족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륜겸 차장_정보보안처



올해는 회사만이
아닌 가족도 잘 챙기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배수 책임연구원_연구기획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연다

튜닝안전기술원

글. 편집실

튜닝안전기술원

(KATIS_Korea Automotive Tuning Institute of Safety Technology)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2길 25
문의 054.429.3500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와 신규 튜닝 항목 개발 등을 맡는 튜닝안전기술원이 문을 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천시 어모면 김천일반산업단지(3단계) 내에 구축한 튜닝안전기술원(KATIS)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과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경북도·김천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해 완공됐다. 튜닝산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와 미래차산업 육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김천의 주력산업이다. 5만1392㎡ 부지 위에 시험동 3개동(튜닝안전시험동·광학시험동·충격연결장치시험동), 지원시설 1개동과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등 장비 46종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38명이 상주 근무하며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와 신규 튜닝 항목 개발, 튜닝 자동차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최한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는 2020년에 5조 9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



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앞으로 튜닝업체 종사자·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특장차에 대한 영남·강원권 지역 최초안전검사 및 계속안전검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2단계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컨버전과 첨단안전장치 평가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안전기술원 구축을 통해 시험장비, 기술력 등의 부재로 불가능했던 튜닝사항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의 튜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의 튜닝 수요에 대응해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풍부하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영세한 튜닝 업체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장비(3D 스캐너) 등을 지원하는 등 오픈-랩 기술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김천시 모빌리티 튜닝 산업 지원센터와 자동차주행시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경북 김천에 10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튜닝산업지원 기반 시설을 완성하는 등 튜닝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그간 구축해온 튜닝산업을 이끌어갈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라며 “국회사와 정부, 학계, 민간기관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튜닝기술의 발전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애프터마켓 시장 조성으로 모빌리티 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TS



튜닝 페스티벌
시범 경주 모습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제2회 TS 튜닝카 페스티벌

글. 편집실



제2회 TS튜닝카 페스티벌
공식 포스터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군 F1 국제 경주장에서 '제2회 TS 튜닝카 페스티벌'이 열렸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정부의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과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제1회 행사에 이어 올해 제2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험·경기·전시 등 3가지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됐다.

먼저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선수가 운전하는 슈퍼카 등 고성능 튜닝카에 동승하거나, 버스에 탑승하여 선수들의 레이싱 경기 기술을 옆에서 볼 수 있는 F1 사파리 투어 및 짐카나·드리프트 등 온로드 체험과 비포장 길을 오프로드 튜닝카로 주행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레이싱 경기에서는 짐카나(온로드) 경기가 3개 부문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부문

별 상위 입상자 3명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캠핑카와 푸드트럭, 교통약자용 튜닝카 등 다양한 튜닝 유형별 자동차들을 직접 타고,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튜닝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페스티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험 예약, 행사장 실시간 중계, 튜닝카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제2회 TS 튜닝카 페스티벌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튜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내 튜닝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올바른 튜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S**

NO.1

국민이 안심하는 철도 교통안전 환경 만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교통안전 환경 만들기애 나섰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함께 지난 1월 25일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시설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담당자 등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본 사업의 목적과 결과평가 등급 선정,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됐다.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는 철도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단은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와 10년 이상 경과한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를 각각 평가한다. 철도시설 성능평가는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철도시설 정밀진단은 철도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한 후 철도시설물의 성능 저하 원인을 찾아내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공단은 6개 분야의 철도시설물 분야 중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4개 분야 철도시설을,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 건축물 2개 분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를 시행 중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철도시설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철도시설에 대한 부실 진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교통안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2

드론 우수 전문교육기관 선정, 교육 모범사례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한해 뛰어난 교육성과를 보인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우수 전문교육기관 3개 업체를 선정하여 1월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수교육기관 선정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업체 236곳(2023.12월 말 기준)의 운영 수준과 교육 품질을 높이고자 2023년 12월 최초로 추진되었다.

선정된 전문교육기관은 ㈜에이스드론,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등 3 곳이다. 이들 전문교육기관은 우수 전문교육기관 선정에 지원한 총 36개의 기관에 대한 종합

심사에서 교육인프라 확보역량, 교육 운영 관리능력, 제도 준수 및 서비스 역량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선정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 표창과 우수 전문교육기관 명패를 수여하였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포털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 항공안전실장과 드론관리처장,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2023년 드론 우수 전문교육기관 대표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드론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2024년에도 드론 우수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며 우수한 드론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NO.3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금번 인증 획득으로 최초로 공단 내 우수연구실 2개실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인증은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고속성능 시험실 및 내구성능 시험실에 대해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공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해 · 위험 요소의 계속된 발굴과 개선활동,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등 연구 활동 종사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공단은 이번 우수인증 연구실 선정을 시작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패러다임이 자율안전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실별 추진한 안전활동들이 ‘우수연구실 인증’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큰 의



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하나되어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O.4

교통안전 ChatGPT를 꿈꾼다



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고객유형을 연속 학습하고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컨설팅 존은 공무원,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 · 군 · 구가 교통안전 위험도 예측과 사전 예방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 예측 시스템 T-Safer를 활용하여 도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운전자의 11대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8.7% 감소하도록 유도하였다.

‘TS AI 체험존’은 공단 대국민 홈페이지(www.kotsa.or.kr) ‘고객참여’ 메뉴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0월 휘튼과 생성AI 생태계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앞으로도 AI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웹메일 AI 모델 도입 등 다양한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AI를 기반으로한 국민 참여와 소통은 필수적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은 공단의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TS AI 체험존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을 ChatGPT화하여 국민이 체험하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휘튼테크놀로지스(이하 ‘휘튼’, 대표 이세영)와 함께 AI 기반 업무 혁신의 시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AI를 · 챗봇 대국민 체험서비스인 ‘TS AI 체험존’을 운영 중이다. ‘TS AI 체험존’은 국민이 공단의 각종 서비스를 AI를 통해 원활하게 안내받고, 교통안전에 AI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TS AI 체험존’은 크게 2가지로 대국민 AI 상담존과 공공부문 AI 컨설팅존으로 구분되며, 대국민 AI 상담존은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위한 ‘운전 적정정밀검사 대상 여부 상담’, △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식주차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동차 리콜정보 안내를 위한 ‘알기 쉬운 자동차리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컨설팅존은 공단이 자체 개발한 교통사고 위험 예측 AI의 활용 · 컨설팅을 위한 ‘T-Safer’로 구성된다.

대국민 존은 지난 7월 공단과 휘튼이 함께 개최한 AI를 빌딩 경진대회인 ‘TS AI프론티어’의 우수사례를 구체화한 AI 챗봇으로, 프롬프트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테스트 · 보완 후 시범 도입했다. 대국민 AI 상담존으로 국민은 간단한 정보 문의를 위해 콜센터에 연결하여 대기하는 불

자동차에도 개성을 부여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해

글. 한울 사진. 박윤오



색다른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리모델링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동차 또한 ‘기성’ 자동차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담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는 모빌리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가 개성의 공간, 삶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튜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 실내 꾸미기부터 각종 장식품으로 차를 세련되게 꾸미는 것은 물론 주행 성능까지도 향상시키는 등 운전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리라 기대된다.

용인자동차검사소 박병상 부장을 만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이모저모를 들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입사해서 지난해 입사 2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다시 새롭게 1년을 시작한 용인자동차 검사소 박병상 부장입니다. 저는 자동차 튜닝검사 및 모든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상담하고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해 검사소를 찾으신 고객들의 민원은 물론 현장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내부 민원 업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Q. 이번호 테마가 '튜닝'입니다. 먼저, 자동차 튜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튜닝은 원래 '악기를 조율한다'는 뜻인데, 자동차에서는 구조 변경이나 성능,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산차를 소비자의 개인 취향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지요. 튜닝은 안전성능을 향상시키는 '튠업(Tune Up)', 자동차 내·외관을 치장하는 '드레스업(Dress Up)', 퍼드트럭이나

레저 활동을 위한 캠핑카 등의 '빌드업(Build Up)'으로 구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화장치나 소음방지장치 등을 바꾸거나 자동차 지붕에 캠핑용 루프탑텐트나 그늘막을 부착하는 것도 튜닝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튜닝 제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에 있어서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법과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소에서는 튜닝승인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 튜닝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령, 내 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 싶다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정비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방문해

서 자동차를 어떻게 구조변경할지 상담한 후 그에 관련된 설계 도면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이버검사소(인터넷)를 통해서 승인 신청을 하고 공단 본사 기술승인처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튜닝승인이 완료되면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튜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튜닝 목적과 취향대로 변경할 수 있지만, 올바른 기준에 맞게 튜닝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춰 튜닝 문화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추측이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튜닝은 매우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소수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튜닝이 대중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정부의 튜닝 규제 완화로 기존 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에까지 가능해졌고, 아울러 캠핑족이나 차박족이 증가하면서 캠핑카 튜닝이 현저히 늘어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고객 상담을
하고있는 모습

자동차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내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습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증가로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개인의 고급 레저 활동에 어울리는 이륜자동차 튜닝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양이 적은 천연가스 엔진으로 튜닝하는 친환경 튠업 튜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 튜닝을 고려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점이 있다면요?

자동차 튜닝은 장비와 인건비, 퀄리티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튜닝의 목표와 예산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효과적인 튜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튜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작업은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안전도 위협합니다. 내 주변의 전문 튜닝 업체를 찾으려면 TS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메뉴바에서 '튜닝서비스'튜닝업체목록조회'를 클릭하면 지역별 또는 정비구분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은 기존의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TS튜닝알리고'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튜닝 업체 안내, 온라인 튜닝 견적서 발급, 튜닝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튜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업무를 해오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요?

7년 전쯤 수원자동차검사소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르신께서 퇴직 후에 아내분과 여행을 다니시려고 직접 자동차 실내를 튜닝하신 후 검사를 해달라며 찾아오셨어요. 차를 열 어봤더니 튜닝 작업이 너무 잘 돼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인 절차 없이 튜닝을 진행했다는 점이었어요. 그야말로 불법 튜닝을 한 거죠. 이미 여러 검사소를 알아보다가 오셨더라고요. 어르신이 너무 난처해하시기에 제가 찜찜이 시간을 내 직접 설계도면, 계산서 등 서류를 만들어 튜닝승인부터 검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참으로 고마우셨던가 봐요. 지금까지도 가끔 찾아오셔서 인사를 전하고 가십니다.

Q. 업무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궁금해요.

평소 튜닝 전문 업체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용인자동차검사소에 발령을 받아 왔을 때 튜닝 업체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사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며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교류하고 소통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기본 좋게 협력하며 일하는 관계가 소문이 났는지 수원, 성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를 찾아오곤 합니다.

Q. 올해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려주세요.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는 다시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자동차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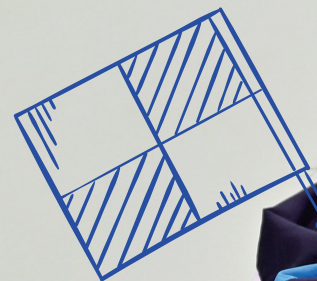
TS튜닝알리고
QR코드



축구 동호회의
‘골을 때리는 그녀들’

글. 한울
사진. 홍영기

멋진 ‘황금발’이 되기를 꿈꾸다!



매일 축구공처럼 하나된 우리



‘축구하는 여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방송가에서 여성 축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여성 축구 유행에 불을 지폈다. 공단에도 여성 축구팀이 탄생했다. 축구는 회사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동근 공 하나로 팀원들은 하나가 되는 값진 경험도 할 수 있다. 강추위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여성 축구팀 ‘골을 때리는 그녀들’을 만나고 왔다.



축구가 좋아 팀을 이룬 여성 직원들

7시를 훌쩍 넘긴 어둑어둑한 저녁, 세찬 겨울바람에 코끝, 손끝이 시린 날이었지만 운동복을 입은 여성 직원들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풋살장으로 하나 둘 모였다. 손에는 축구공을, 얼굴에는 미소를 한가득 장착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가볍게 풀 후 골 패스 연습에 돌입했다. 풋살장이 금세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축구 연습에 열심인 이들은 '골을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의 멤버들이다. 골때녀는 지난해 10월 축구 동호회에 소속되어 결성된 여자 축구팀으로, 현재 15명의 여성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축구 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첨단연구개발처 이호상 처장이 '골때녀'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이전까지는 축구 동호회가 오랫동안 남성 회원들로만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들도 축구를 통해 회사 생활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소를 느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에 '골때녀'가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축구에 대한 여성 직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검사 여자 축구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저는 '골때녀'에 참여하길 원하는 회원을 만났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했거든요"

'골때녀'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퇴근 후 모여 연습을 한다. '부담 없는 활동'이 모토인 만큼 동호회는 자율적인 분위기로 운영이 된다. 남성 축구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레슨을 받고 여성 회원과 남성 회원이 팀을 이뤄 5:5 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철도기술처 이주영 차장은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에 초점을 둔 트레이닝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여성 회원들의 실력을 칭찬했다.

"회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덕분입니다.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올봄에는 타 팀과 시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뛰며 땀 흘려 넣은 골의 매력

핑! 핑! 소리와 함께 골때녀의 발들은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달리는 와중에도 웃음소리는 떠나지 않았다. 공이 골문을 통과하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료 회원들이 있기에 즐거움은 더욱 배가 된다. 사실 처음에는 공을 밟고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였고, 같은 팀에게 패스해야 하는데 상대팀에게 패스하는 등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법 경기하는 태가 난다고.

골때녀 회원들은 축구의 매력으로 성취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주장을 맡고 있는 자동차정보처 방보영 대리는 "팀 스포츠의 매력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내가 패스한 공이 동료 회원의 발을 거쳐 골로 연결될 때 정말 큰 희열을 느낍니다. 골에 기여했다는 성취감이 무척 크고요. 서로 협력해 같은 목표를 이뤄낸다는 점에서 짜릿한 경험입니다. 축구는 단체경기이니 동호회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매 순간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골때녀는 앞으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축구는 유산소와 근력 강화를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꼽힌다. 처음에는 2, 3분만 뛰어도 숨을 헉헉거리는 고통이 있지만, 즐기다 보면 차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시작했다는 교통복지처 배정민 대리도 이러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 공을 쫓아 경기장을 열심히 뛰고 나면 상쾌하기 그지없다.

"체력 훈련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지고서 축구를 하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속에서 피로를 느끼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헬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니 일단 재미있어서 좋아요. 함께 달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 흘려 넣는 골 맛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축구를 통해 돈독해진 동료 관계는 회사 생활에서 원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업무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소속과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도 소통을 통해 조언을 얻거나 업무협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때녀의 성장을 응원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를 마친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그녀들의 얼굴에서 전해졌다. 교통안전처 김은솔 과장은 "오늘도 동지애를 느꼈다"며 미소 지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동료들과 교류하는 감정들이 가끔은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뛰는 우리 동료 회원들,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는 남성 축구 동호회 회원님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다른 팀과 멋진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축구에 대한 매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호상 처장은 "골때녀의 내일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봄에는 김천에 있는 민간 또는 기업 소속 여자 축구팀들과의 시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골때녀'에서는 누구나 즐겁게 운동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골때녀'가 더 멋진 성장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 회원들은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오늘을 기념했다. 서로의 실력을 칭찬하며 성취감을 나누는 모습은 더없이 좋아 보였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골때녀들! 회사 생활의 활력, 취미의 재미, 건강까지 모두 잡은 '골때녀'의 행보를 힘껏 응원한다. **TS**



“저는 ‘골때녀’에 참여하길 원하는 회원을 만났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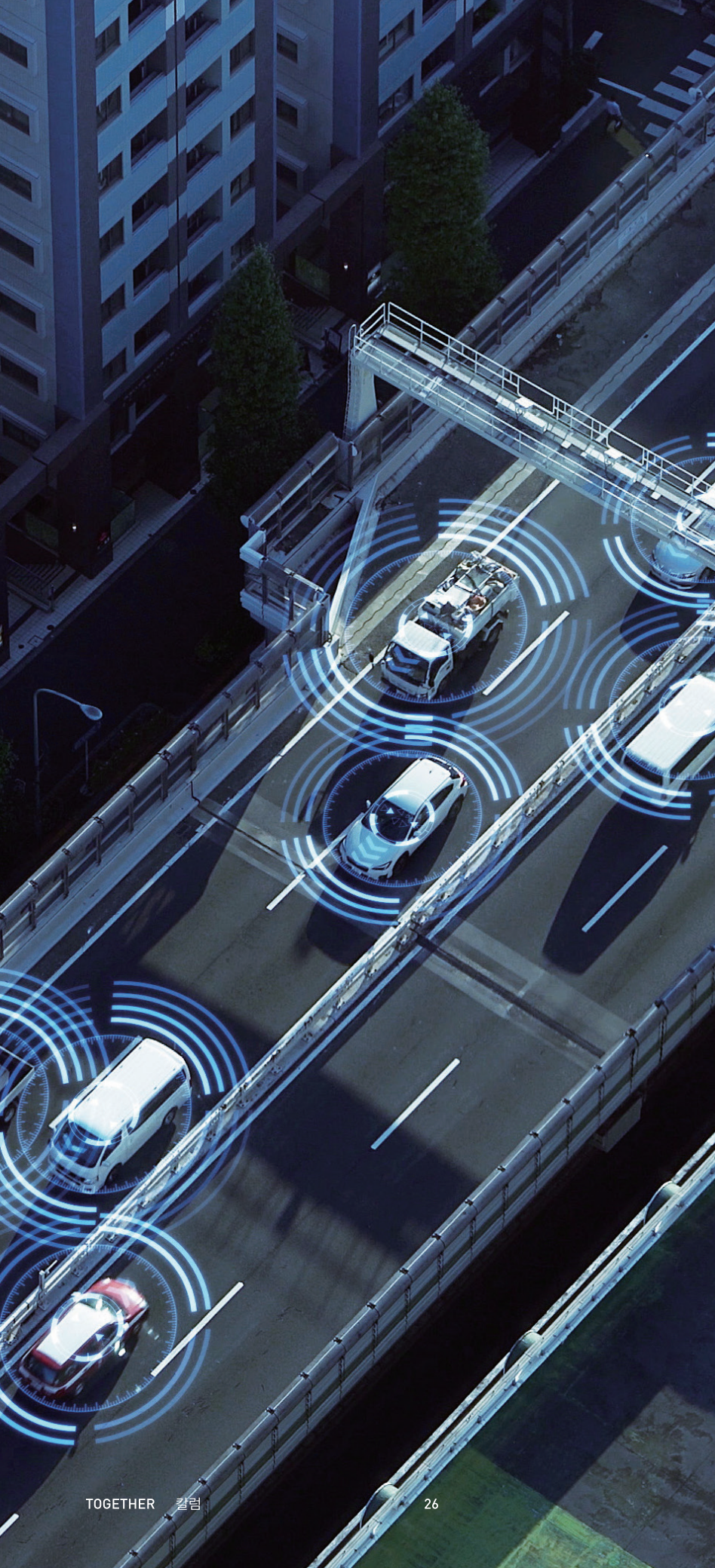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

글, 더세메이온 김영모 대표 「교통수단, 세상의 거리를 좁히다」, 자차

수레바퀴에서 증기기관으로,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교통수단이 바뀌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어온 인류가 이제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는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한 번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 교통수단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각각의 머릿글자를 따서 케이스(C.A.S.E)라고도 한다.



연결(Connectivity)

요즘은 이미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 항상 켜고 목적지를 안내받는다. 커넥티드(Connected) 기술, 즉 연결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전에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경로를 알려 줘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한 적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많은 차량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차량이 주변의 도로 상황, 다른 자동차들과 연결되어 가장 적합한 길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나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스마트폰과 통신으로 연결된 자동차는 개인과 세상과 연결의 허브가 될 것이다. 카투홈(Car to Home)/홈투카(Home to Car) 연결로 차 안에서 가전기기의 작동상태를 알고 제어하고 예약할 수 있고 차량의 핸들, 시트, 안전벨트, 머리 받침대 등을 통한 혈압, 체온, 심박 등 생체신호 인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테슬라에서 OTA(Over the Ai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무선 차량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념의 발전을 자극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주행성능이나 편의성, 안전성 등을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차량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Autonomous)

자율주행은 커넥티드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이동 중의 돌발 상황에도 모두 대처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등 주어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운전만 자동으로 하는 수준을 벗어나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의 선택과 이동 경로까지도 모두 결정하는 걸 말한다.

커넥티드 기술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탐색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은 이동기기 소유자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학습에 의해 진화 및 변화하게 되면서 기계와 인격체의 경계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운전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지니 자동차의 내부의 운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승객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핸들은 꼭 필요할 때만 나오도록 숨어 있게 되고 의자는 가운데 테이블을 마주 보도록 회전이 가능하고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이동 중에 여가와 휴식을 위한 변화가 더 많이 기대된다. 예를 들면 창밖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영화감상이나 게임에 방해받지 않도록 투명 디스플레이로 된 창문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편안한 노을 풍경이나 바닷가 풍경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외부 소음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고 시원한 바람 소리와 매미 소리 등 편안한 소리만 들리게 할 수도 있다.



공유(Sharing)

자동차 이전에는 귀족들이나 극소수 부자들만 마차를 타고 다녔고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자동차가 발명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한 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교통수단을 개인이나 가정별로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처럼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통수단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내 차처럼 사용하지만 필요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주차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과 공간도 절약되고,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라스트마일(Last mile) 모빌리티라고 하는 대중교통에서 내려 집이나 사무실로 가기 전 몇 km 정도의 거리 이동에 쓰이는 교통수단은 특히 지하철에서 내려 집에 갈 때까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 공유 교통수단의 가장 큰 적용처가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는 차량을 단기 공유하는 기존의 카 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 외에도,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소비자가 원하는 곳까지 차량을 가져다주는 카 헤일링(Car Hailing), 그리고 우버와 같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택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 등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로 인해 주차 공간이 줄어들면서 도심은 물론 주거지의 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백 년 이상 지속된 건축 설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전동화(Electrification)

20세기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는 빠르게 내연기관을 발전시켜 왔고 제트엔진의 발명으로 음속보다 5배 빠른 비행기까지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다시 전기와 모터를 동력으로 쓰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예상 된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발달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로 동력이 바뀌게 되면 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어지고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되므로 훨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시 차량 내부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자동차에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지니 엔진오일이나 냉각수를 갈 필요도 없고 수리를 할 부분도 줄어들어, 기존 자동차 수리업체들은 점점 시장이 작아질 것이다.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전기적으로만 연결되면 되니 차량의 뒷부분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인용 승용차에서 뒷부분만 바꾸면 6인승 밴이 될 수도 있고 픽업처럼 트럭으로 바꾸는 등의 변신이 가능해지는 것 또한 전동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변화는 이미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교통수단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들이 서로 융합되어 상상하지 못한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래의 교통수단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TS

튜닝 브랜드, 스트리트 컬처를 지배하다

글. 신나라

참고.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이노션인사이드그룹 외 다수

피치스, 데우스, 백아드빌더……
이제는 MZ의 패션과 문화, 트렌드 현상이 된
‘튜닝’ 기반 스트리트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의 무엇이 MZ를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Peaches.



피치스 스티커로
튜닝한 차량

차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튜닝 ‘컬처’, 피치스

길을 지나다니다가 차에 ‘Peaches’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로고가 프린팅 된 티셔츠나 액세서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서울을 기반으로 자동차 스타일링 문화를 확장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입니다. 피치스는 자동차 튜닝을 브랜드의 핵심에 두고, 이 핵심을 토대로 패션과 음악, 영상 미디어를 접목해 독특한 테이스트를 선보이죠.

내 차를 처음 구매한 후로 튜닝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는 피치스의 여인택 대표는 뒷모습이 예쁜 자동차를 가리켜 복숭아(Peach)라고 부르는 영미권 은어에 착안해 로고를 만들고, 자신의 차에 로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것이 피치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치스의 구성원들은 자동차 튜닝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사람들이라 보니 연령대도, 직업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의 문화를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피치스가 본격적으로 대중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성수동에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하면서부터입니다. 성수동에 자리한 피치스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그야말로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슈퍼카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고, 야외에서 자그마한 파티를 즐길 수도 있죠. 젊고 개성 있는 분위기의 젤라또 가게와 위스키 바, 패스트푸드 매장 등 업종만 보아서는 도무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식음업장에도 별안간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거나, 엔진을 모티프로 한 벤치가 놓여있기도 하고, 레이싱 경기가 펼쳐지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소품이 몽땅 설치된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처럼 자동차나 튜닝용 부품을 오브제로 활용한 독특한 인테리어 덕분에 피치스 도원은 이색적인 포토존 명소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튜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자동차 스타일링의 문화와 접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피치스의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자동차 튜닝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단 1,500장만 판매하는 피치스의 스티커가 가진 희소성도 브랜드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데우스 스티커로
튜닝한 바이크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이하 데우스), 작품 속의 난항을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말하는 이 웅장한 이름은 놀랍게도 커스텀 바이크를 자신들의 DNA로 삼고 있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호주의 서핑, 바이크 마니아 데어 제닝스와 카비 텍웰의 커스텀 모터사이클 제조사였던 데우스는 자전거도 싼고, 서핑보드도 싼 수 있는 특이한 디자인의 커스텀 바이크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신념과 소망, 취미를 듬뿍 담은 브랜드를 만들며, 이름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정했습니다. 데우스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랜드'가 되기를 꿈꾸면서요.

데어와 카비는 곧 '문화의 신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신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바이크와 서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바이크를 어떻게 꾸몄는지 관찰하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죠. 또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바이크를 튜닝할 수도 있도록 각종 부품과 굿즈를 판매하며 무언가를 내게 맞는 방식으로 새로이 만드는 '커스텀 문화'를 생생하게 노출했습니다. 마니아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던 이곳은 어느 새 인근 지역의 명물이 되었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바이크나 서핑보드가 없어도 문화의 신전에 찾아온 누구나,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죠.

서촌에 자리한 데우스의 오프라인 매장, 데우스 삼청은 한옥을 모티프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친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매장을 구성한 데우스 홍대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서촌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추어 카페와 패션 매장 공간을 더욱 부각하고,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데우스라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인식에 스며들도록 구성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브랜드를 연출하는 데우스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요란한 배기음과 가죽 재킷, 스포티하고 격렬한 이미지의 커스텀 모터бай크를 쉽게 연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사로잡는 스트리트 문화의 매력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24년 Z세대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최근 1020 연령층이 관심사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 개인적 지향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관계를 가지는 현상을 '트라이브십'으로 정의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다양화,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학연이나 지연, 혈연 중심의 공동체보다 수많은 관심사 중 어느 한 부분과 꼭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작은 규모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보다 끈끈한 공감대와 유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스트리트 문화는 이름 그대로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필연적으로 스트리트 문화는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 주기도 무척 짧으며 각 시기별 유행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스트리트 문화는 위에서 소개한 피치스와 데우스처럼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만들고, 꾸밀 수 있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그 스타일이나 형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브랜드의 성격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튜닝에서 연상되는 배기음, 주류에서 벗어난 듯한 외관, 자유분방한 개성 등이 패션이나 음악 카테고리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튜닝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존의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추어 변형하는 것이기에 튜닝을 근간으로 하는 브랜드는 어떤 분야와 매치되더라도 본래의 가치와 정체성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나 자유롭게 매치할 수 있다는 튜닝의 장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죠.

모두에게 친근한 문화는 높은 접근성과 친숙함이 무기이지만, 생소한 문화는 낯선 것을 접할 때 느끼는 신선한 놀라움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때로 이 낯섬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피치스, 데우스, 백야드빌더 등의 브랜드는 음악, 영상, 패션 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튜닝이 무조건 값비싼 부품을 구입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하는 럭셔리한 취미가 아니라 즐겁고 개성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연 내 업무 스타일에 맞게 책상을 정돈하고, 모니터의 높낮이를 바꾸는 간단한 '커스텀'부터, 마음에 드는 바지의 기장을 살짝 손보는 것, 에코백에 카드를 넣을 작은 주머니를 하나 더 다는 것도 튜닝이라고 생각해보면 내게 차나 모터바이크가 없어도 이미 즐거운 튜닝 문화를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피치스의 오프라인 스토어 이름은 '도원'입니다. 삼국지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장면인 '도원결의'에서 착안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서로 다른 출신과 특기를 가지고도 오래도록 끈끈한 우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이 말로 뚜렷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트 문화도 언제나 작게, 우리끼리 통하는 무언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왠지 만나기만 하면 즐거운 친구들, 이상하게 들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 있다면 나와 그 대상 사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서도 새로운 '스트리트 문화'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TS

사람과 차를 조율하는 지휘자 경기북부경찰청 문성준 경위



교통交通, 말 그대로 ‘오고 가며’, ‘통한다’는 뜻이다. 하늘과 바다, 더 넓고 먼 곳을 향한 인간의 꿈은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등 온갖 탈것을 만들었고, 인간이 발 딛으며 만든 길은 한층 낮설고 새로운 곳으로 구석구석 뻗어 나갔다. 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에는 이야기와 사연이 있다.

길을 오고 가며, 통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 경기북부경찰청의 문성준 경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여러 매체를 통해 경위님을 알게 된 독자분들도 있겠지만, 이 지면을 통해 경위님을 처음 만나는 독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교통경찰의 꽃, 싸이카를 타고 있는 문성준 경위입니다.

싸이카를 ‘교통경찰의 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나요?

크고 멋있으니까요.(웃음) 저는 싸이카를 타는 직무가 있다는 걸 경찰이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사실 당시에만 해도 직원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위험한데다,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싸이카를 처음 본 순간 ‘꼭 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싸이카는 무겁고 큰 오토바이라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싸이카도 고속도로의 임행순차량처럼 약간의 튜닝을 거친 오토바이인가요?

한국은 육중한 생김새의 할리데이비슨 기종과 상대적으로 날렵한 생김새를 가진 BMW의 기종, 두 가지 기종을 싸이카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BMW사에서 나오는 기종은 경찰용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뒤에, 해당 국가의 규정이나 상황에 맞추어 성능이나 기능, 외장을 조금씩 바꾸는 ‘튜닝’을 거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정받은 싸이카는 탑승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잠깐 실수하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오토바이라 생각하면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위님의 모습을 접했을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경위님의 시야로 촬영된 영상을 보신 분

들도 많을 거고요. 업무 하는 현장을 촬영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사실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는 목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업무 시간 찐찐이 다양한 도로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을지 검토하고, 다음 번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복기했죠. 그런데 업무 상 가깝게 지내던 인근 소방서 대원분이 ‘참 좋은 자료인데,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다’ 하고 권했습니다. 공익을 홍보하려고 의도하기보다, 시야가 실 새 없이 돌아가고, 때로는 위험하게, 속도감 있게 도로를 다니는 영상이 현장의 긴박감과 교통 질서의 중요성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요.



유튜브에 출연한
문성준 경위의 모습
©tvN

영상을 업로드한 뒤 실제로 도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현장에서 사례가 몇 건이 늘고, 줄었고가 느껴지기 보다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댓글에 주변에도 안전 수칙을 많이 알려 주어야 하겠다든지,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남겨줄 때 이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경위님이 경찰이라는 직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군 복무 대신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는데요. 의경 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업무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간접적으로 겪어 보기도 하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어요. 학생 때부터 유공장을 받을 만큼 꼬박꼬박 헌혈을 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남을 돕는 걸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단니,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노량진에서 2년 간 열심히 공부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바라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원할 때 일이 오는 직업이 아닌 만큼 업무가 순식간에 몰리거나,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오기도 할 텐데, 이럴 때에는 피로나 무기력감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는 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고,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냥 쉬고', 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웃음)

‘여행’하니까 말인데, 혹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직업병이 있을까요?

의도하지 않아도 낯선 곳을 가면 도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신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또 눈앞에서 법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도로교통법을 읊게 돼요. 언젠가 부터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입니다”라든지, “범칙금 얼마입니다” 같은 말을 흥내 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요, 도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관할지역 안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도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주측정 방식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측정기 하면 으레 떠올리시는 ‘후~’ 부는 측정기를 사용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도입된 음주측정기는 비접촉식이라 측정기를 입에 대고 불지 않아도 된답니다.

경찰청 내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교통과나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안전계의 경우 현장 단속이 많다 보니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할 때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니 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장은 이해하지만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하는 과정까지가 참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통안전계, 교통조사계, 교통계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교통계는 운전자의 면허에 관련된 업무와 신호 등, 표지판 등 도로 위 시설물들을 관리합니다. 교통조사계는 이름 그대로 사고 상황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죠. 교통안전계는 국민들이 안전한 교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긴급하게 현장에 나가야 한단든지, 예기치 않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등 하루를 내 계획대로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규칙적인 일상에서 몸이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루틴이 있나요?

저녁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해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겠지만, 출근할 때마다 저녁 식사는 온가족이 같이 하고, 아이들과 많이 놀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섭니다. 하루 중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은 내 일과에 규칙처럼 정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TS매거진의 주제는 ‘튜닝’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튜닝’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엇이든 좋다면 저는 제 몸을 튜닝해보고 싶은데요. (웃음)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다리가 긴장되어 쥐가 나기도 하고, 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호흡이 불편해지기도 하거든요. 몸 튜닝으로 이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S매거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본부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배포되는 기관지입니다. 공단 사우를 비롯해, 일반인들과 경찰을 꿈꾸는 취준생들이 읽기도 하는데요. 독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도로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유익해주세요. 교통경찰의 단속 업무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교통경찰에게도 친절히 대해주시요. TS



어디까지 꾸며도 되나요? 차꾸 Do & Don't

글. 신나라 참고.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외 다수

깊꾸, 워꾸, 폰꾸, 다꾸를 넘어 시내버스도 꾸미기를
할 만큼 정말 별 걸 다 꾸미는 시대,
내 차도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른다.
본격적으로 차꾸를 하고 싶어졌다면,
먼저 내 차를 '어디까지' 꾸며도 될지 알아보자.

생애 첫 차를 구매했다면 작게는 인센스와 주차번호판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타이어나 휠을 독특한 색상과 모양으로 바꾸거나, 컬러 필름을 부착해 화려한 아트워크를 뽐내는 등 내 취향대로 차량을 꾸미는 재미에 빠지게 마련이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자동차 액세서리 한두 개는 기본 전환을 위해 구매하게 되기도 한다. 외관이 눈에 띄게 변형된 차량은 불법 개조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규정 범위와 기준에 맞추어 튜닝을 진행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차꾸'를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튜닝'을 하고 싶을까?

일반적으로 차량의 외관이 독특하게 변형된 것을 보면 '튜닝 카'라고 생각하는데, 튜닝도 변형을 진행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도색이나 부착물 등으로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차량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을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하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거나, 색다른 주행 감각을 위해 엔진 출력과 주행, 제동 등의 성능을 조정하는 것은 튜 업 튜닝으로 구분한다. 또 승합차나 화물차가 적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차실의 구조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빌드업 튜닝이라 한다. 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캠핑카와 택배 차량 역시 빌드업 튜닝을 거친 것들이다.

인기 영화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캠핑카와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캠핑카와 푸드트럭은 차량의 형태와 기능이 바뀌는 대표적인 빌드업 튜닝 차량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 차량의 외관과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 차량의 높이(차고)나 폭(차폭)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구조 변경으로 인해 차량 생산 당시의 성능과 튜닝 후의 성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튜닝을 진행하기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한 내용과 개조작업 후의 내용이 동일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 승차정원을 늘리거나, 적재량을 늘리는 등 차량의 총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승용차를 승합차로 변경하는 것처럼 차종을 변경하는 개조도 할 수 없다. 차종과 원하는 튜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튜닝을 계획하고 있다면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튜닝의 절차와 규정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두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와 주변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도로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이어주는 고마운 시설인 만큼, 운전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TS**

DO NOT LIST

01



전조등, 후미등 램프 색상 변경

차량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각종 램프들은 주변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색상과 광도가 규정되어있다. 색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인증 부품이 아닌 램프를 사용하거나, 출고 시 장착된 램프 외 추가로 램프를 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램프로 차량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차량 내부의 실내등과 AMBIENT LIGHT 등을 살짝 바꾸어보자.

02



번호판 꾸미기

자동차 앞뒤에 달린 번호판은 차량의 명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번호판을 꺾는 것은 물론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번호판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보호하는 가드류는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03



깜짝! 놀래는 스티커와 과도한 필름 래핑

스티커나 래핑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빛을 크게 반사하는 반사광 스티커처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차나 구급차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차량과 혼동할 수 있는 스티커, 혐오감을 주는 래핑도 사용할 수 없다. 귀여운 인형을 매달거나, 부착하는 것도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부착물이 번호판이나 램프를 가려서는 안 된다.

* 이곳에서 모두 소개하지 못한 튜닝의 규정과 사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TS튜닝알리고 누리집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튜닝알리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비행기, 자동차 애호가라면 꼭 들러야 할 문화 체험 공간



오창휴게소 하남방향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창휴게소(하남방향)는 비행기 애호가, 자동차 애호가들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할 만큼 다양한 교통수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오창휴게소 메뉴 TIP

오창휴게소(하남방향)의 대표 메뉴는 바로 금강설령탕의 머릿고기 설령탕(1만원)과 살코기 설령탕(1만원)이다. 전국 5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추억의 맛집, '금강설령탕'과 협업한 매장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맛을 낸 노포의 진미를 휴게소에서도 느낄 수 있다. 창업 당시부터 전해오는 '씨국물'에 새 육수를 붓고 4개의 가마솥에서 24시간 동안 끓여낸 설령탕 국물은 잡내 없이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 특별한 간식 아이스크림 쥬러스 5,500원 / 십원병 4,000원

VR 드론도 체험하고 비행기도 구경하고

충북 청주시 청원군에 위치한 오창휴게소(하남방향)는 1992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곳으로 오창 일대 신도시가 들어서고 중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늘면서 이용객이 증가했다. 2022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본관, 별관, 특별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오창휴게소의 세 건물 중 가장 최근에 완성된 특별관 2층에는 '오창비행기전시장'이 마련되어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한 비행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이 전시장은 국적기, 국책항공사, 국적식별기호 등 한번쯤 들어 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항공 관련 지식도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전시장 뒤편은 청주공항과 청주공군비행장 방향으로 시원하게 창이 있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전투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어린이 직업체험으로 인기인 VR 드론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 운전해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 방문했다면 꼭 한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푸드코트만 들러도 문화 체험이 가능한 곳

오창휴게소(하남방향) 본관 푸드코트 창가에는 60여 점의 다이캐스트 모델 카도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이캐스트 모델 카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미니카 장난감과는 달리 카본, 가죽, 카펫 등 실제 차와 최대한 비슷한 소재로 제작된 금속 자동차 모형으로 자동차의 휠, 실내 장식, 엠블럼 부분까지 생생하게 구현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옆에는 캠핑장 콘셉트로 꾸며진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휴게소 실내에서 캠핑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다. 또한 1만 원 이상 이용 시 충북 명소 할인권도 받을 수 있으니 충북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 꼭 들러보자. **TS**





T식백과

저 여기 있어요! 차는 전조등으로 손 번쩍!

글. 신나라 | 참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현대자동차 외 다수

전조등을 끈 채 달리는 차를 흔히 ‘스텔스’라고 부른다.

밤길에 램프를 점등하지 않은 차량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지금 ‘스텔스’인 채로 주행하는 것은 아닐까?

전조등을 켜면 연비가 떨어진다는데?

도로 위에서 내 차를 알리는 방법, 전조등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자.



자동차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줄 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을 신속하게 운반하며 우리의 생활을 더욱 쾌적하게 해준다. 이미 우리 삶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자동차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역량과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탑재되어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의 눈이라고도 하는 전조등이다.

1

자동차와 나의 눈, 전조등

전조등은 야간 운행 시 기본으로 켜야 하는 등화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다른 차량에게 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사람은 70% 이상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인데, 전조등은 운전자가 신속하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량의 위치를 알려 다른 운전자들의 주변 상황 파악을 돕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눈비가 잦은 계절, 드센 강우를 만나면 야간 운전 못지않게 시야 확보가 어렵기에 전조등 사용을 강권하지만,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사고율이 약 2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고율 ▼ 20%

2

전조등에도 위, 아래가 있다!

전조등에도 위와 아래가 있다는 사실! 전조등은 상향등과 하향등으로 구분되는데, 상향등은 자동차가 장착한 등화 중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으로, 빛이 충분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를 달릴 때나, 하향등만으로는 차선이나 도로 환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시야를 더 넓게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상향등은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는 물론, 악천후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에도 활용하며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골목과 모퉁이에서 내 차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점등하기도 한다.

다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상향등을 점등하고 달리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상향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맞은편의 교행 차량이 인식될 경우 광원을 잠시 꺼주는 기능을 탑재하기도 하는데, 모든 차량에 적용된 기능이 아니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전조등은 하향등으로 점등하고 달리는 것이 좋다.



하향등 유지

3

전조등을 점등하면 연비가 떨어질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전조등이 연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연비를 떨어트릴 정도는 아니다.’이다. 전조등을 점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기는 엔진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레귤레이터 등 다양한 부품들이 전력 생산으로 인해 엔진이 부하 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제조사 역시 운전자와 주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켜놓는 등화인 만큼 전조등에는 내구와 수명,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연비에 큰 영향 없음

화려하게 빛나는 전광판과 고층 건물들의 불빛으로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심과는 달리, 국도나 지방도로 등 광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전조등을 끄게 되면 운전자도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보행자와 주변 차량도 차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법으로도 강력하게 차량 등화를 강제하는 만큼,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점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조등이 소모하는 전력은 연비 저하를 걱정할 만큼이 아니니, 안심하고 차의 두 눈을 반짝 켜주자. 차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빛으로 말할 수 있게 말이다. 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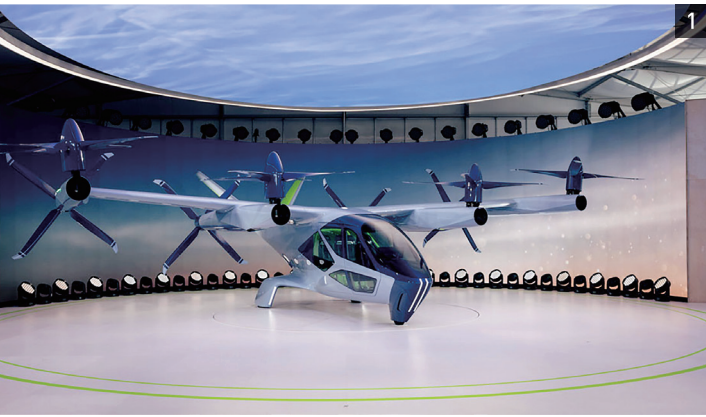
대한민국 완성차·전자 기업 CES 2024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보이다

글. 최윤주 참고. 현대자동차그룹 뉴스룸 외 다수

미래 첨단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0개국 약 3000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CES 2024의 화두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대거 공개하면서 가까운 미래의 이동수단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가속 추세에 전자업계도 다양한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 관련 신기술을 선보였다. 자동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려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이 집약돼야 하기 때문이다.



1.

2년 만에 CES를 찾은 현대차그룹은 그룹 내 7개사가 총출동해 역대 최대 규모 부스를 꾸렸다. AI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차량을 '모든 것'과 연결하겠다는 중장기 SDV 전략을 발표하고 ▲수소차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SDV(소프트웨어중심 자동차) ▲UAM 등을 실물로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법인 슈퍼널도 올해 최초로 참가했다. UAM 상용화가 머지않은 만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UAM 기체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실제 크기의 기체를 전시했다. UAM의 공항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 등 AAM 생태계 전반에서 슈퍼널과 현대차그룹이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슈퍼널
©Hyundai Motor Group

2.

5년 만에 CES에 참가한 기아는 유연성·확장성·연결성을 강조한 PBV 컨셉 라인업 5종 PBV 전용 혁신 기술 2개 등을 공개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쉽게 탈부착 가능한 모듈 적용을 통해 하나의 차량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PV5는 이번 기아 전시의 핵심을 이루는 중형 PBV 컨셉 모델이다. 기아는 CES 2024에서 ▲PV5 베이직 ▲PV5 딜리버리 하이루프 ▲PV5 샤시캡 등 PV5의 버전 3종을 전시했다. PV5는 오는 2025년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기아는 이번 CES를 통해 공개한 버전들 외에도 PV5에 기반한 로보택시(Robotaxi) 모델 등을 선보였다.

기아 PV5 전시 ©KIA

3.

LG전자는 전장 제품과 기술을 한데 모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알파블'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파블은 내부에서 가전제품을 활용해 식사와 휴식을 즐기거나 영화,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가 하면 고객의 성향에 맞춰 운전하기 좋은 길을 안내하고, 운전이 끝나면 스스로 세차와 충전 등을 수행해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선보였다.

LG전자 알파블
©LG Electronics

4.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 전장 부품 18종을 탑재한 4.3m 크기의 자율주행·전기차 mock-up(실물모형)을 부스에 전시해 관심을 모았다. 광학 기술 노하우를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 적용한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과 레이더, 라이다(LiDAR) 등과 이들 제품의 장점을 결합해 하나의 모듈에 담아낸 '센서팻'을 CES에서 선보였다. 고효율 광학 구조와 광학 패턴 설계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라인조명 모듈 '넥슬라이드'도 주목받은 부품 중 하나다.

LG이노텍 mock-up
©LG Innotech

5.

LG디스플레이는 본격적인 SDV 시대를 염두에 둔 차량용 초대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들고나왔다. 올해 CES에서 단일 패널로는 세계 최대 크기인 57인치 필러 투 필러(P2P) 액정표시장치(LCD), 현존하는 슬라이더블 패널 중 가장 큰 32인치 슬라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면적이 넓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LG Display

6.

삼성전자는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과 공동 부스를 꾸려 네오 Q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레디 비전 큐뷰'와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하듯 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레디 업그레이드', 운전자의 안면 표정에서 집중도를 인식해 안전운전을 돕는 '레디 케어' 등을 선보였다. 또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를 통한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최초 협업 사례로,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파워월(Powerwall,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EV) 등과 연결해 앱 상에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하만레디
©SAMSUNG Electronics



알래스카 항공 사고, 보잉의 ‘속전속결’ 원인 됐나

글. 양원모

참고.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좌측 사진 출처
©ABC News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오리건주(州)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의 승객 171명은 새해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이륙 10여분 만에 비상구 구멍을 막는 부품인 ‘도어 플러그’에 이상이 생기며 상공 4900m에서 동체 비상문이 뜯겨 나가는 상황을 경험한 것이다.

빠른 회항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승객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탑승한 7명은 보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사고 당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며 뇌진탕이 일어났고, 한 승객은 기내 압력이 급감하면서 귀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

사고가 난 보잉 737맥스는 전력(前歷)이 있는 기종이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하자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다. 항공 정보업체 시리움(Cirium)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보잉 737맥스 9 항공기는 총 215대다. 국내 항공사들도 보잉 737맥스 9와 상당수 부품을 공유하는 ‘보잉 737맥스 8’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EU) 등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내 보잉 737맥스 9

항공기 171대에 무기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고,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도 FAA의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튀르키예 항공사인 터키항공도 보잉 737 맥스 9 기종 5대의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도어 플러그의 제조 불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문제 부품은 외주 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이하 스피릿)이 생산했는데,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된 것이다.

일각에선 ‘비용 절감’과 ‘속전속결’을 앞세워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는 외주 관행이 일으킨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잉은 2005년 “최종 조립에 집중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자체 운영하던 캔자스주 위치타의 부품 공장을 스피릿에 팔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은 매각 이후 부품 생산을 독점하게 된 스피릿에 항공기 제조 속도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고, 직원들은 한 달 평균 1000만여 개의 볼트와 리벳을 조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737 맥스는 안 타” 불안한 여행객들

사고 이후 여행객들 사이에서 보잉737 맥스는 '기피 대상 1호'가 됐다. 항공편 예약 사이트 카약(Kayak)에서는 이번 사고 이후 항공편 예약 과정에서 보잉737 맥스 기종을 골라내기 위한 필터 사용량이 이전 대비 8배 증가했다. 이에 카약은 검색 시 보잉737 맥스가 다른 맥스 기종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필터 기능을 추가해야 했다.

한국을 비롯해 유사 기종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국내 항공사들에 보잉737 맥스 8 기종의 안

전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항공기 문 장착 및 작동 이상 여부, 출입문 고정 상태 등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잉737 맥스 9는 기체 중간에 비상문이 달려 동체 길이가 맥스 8(39.5m)보다 약 3m 길다. 이번에 뜯겨 나간 비상문은 이 중간 비상문이다.

보잉은 '품질 관리 강화'를 재발 방지책으로 꺼냈다. 보잉737 맥스 9에 대한 추가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 부품을 생산한 스피릿 공장에 점검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도어 플러그 외 50가지 부품의 제조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독립된 외부 기관에 자사의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한편, 보잉은 기체 결함으로 최근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P)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보잉 737-700을 개조한 직무 전용 전용기에서 산소 유출 문제가 발생,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형 항공기를 조달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고 여객기 제조사'라는 오명은 당분간 떨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TS**

좌측 사진 출처
©FLYING Magazine



모두를 연결하는 안전한 교통,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문화와 낭만이 넘치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시 마포구

글. 최윤주 사진. 한국관광공사 자료제공. 마포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지역이자
낭만 가득한 풍경으로 서울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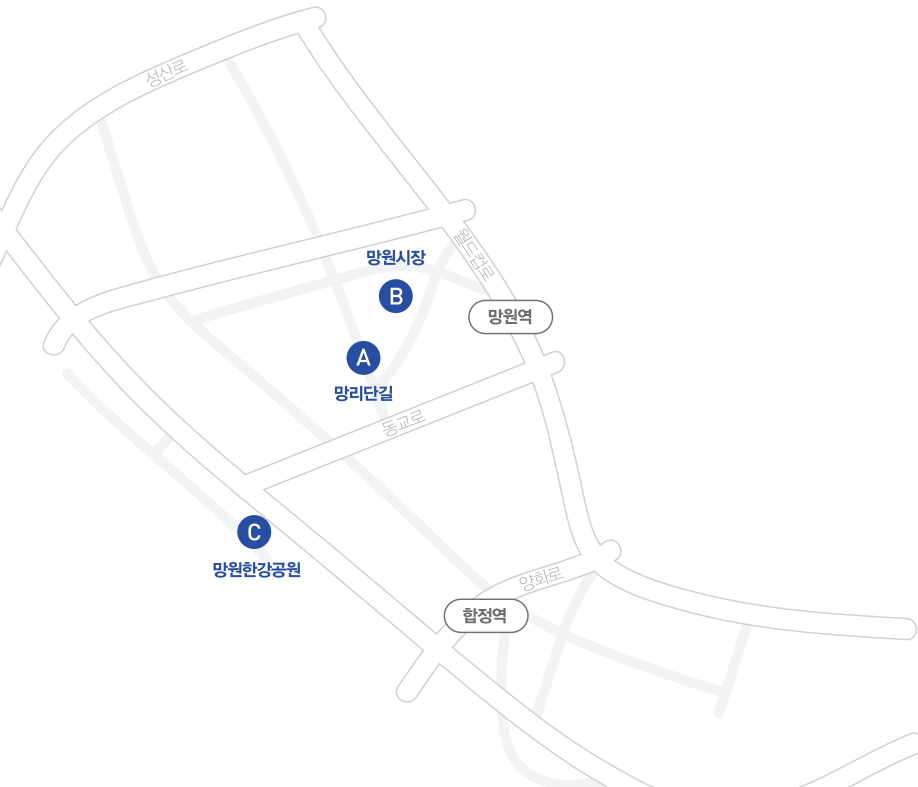
추위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낭만이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봄이 다가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SEOUL

MAPPO

망원한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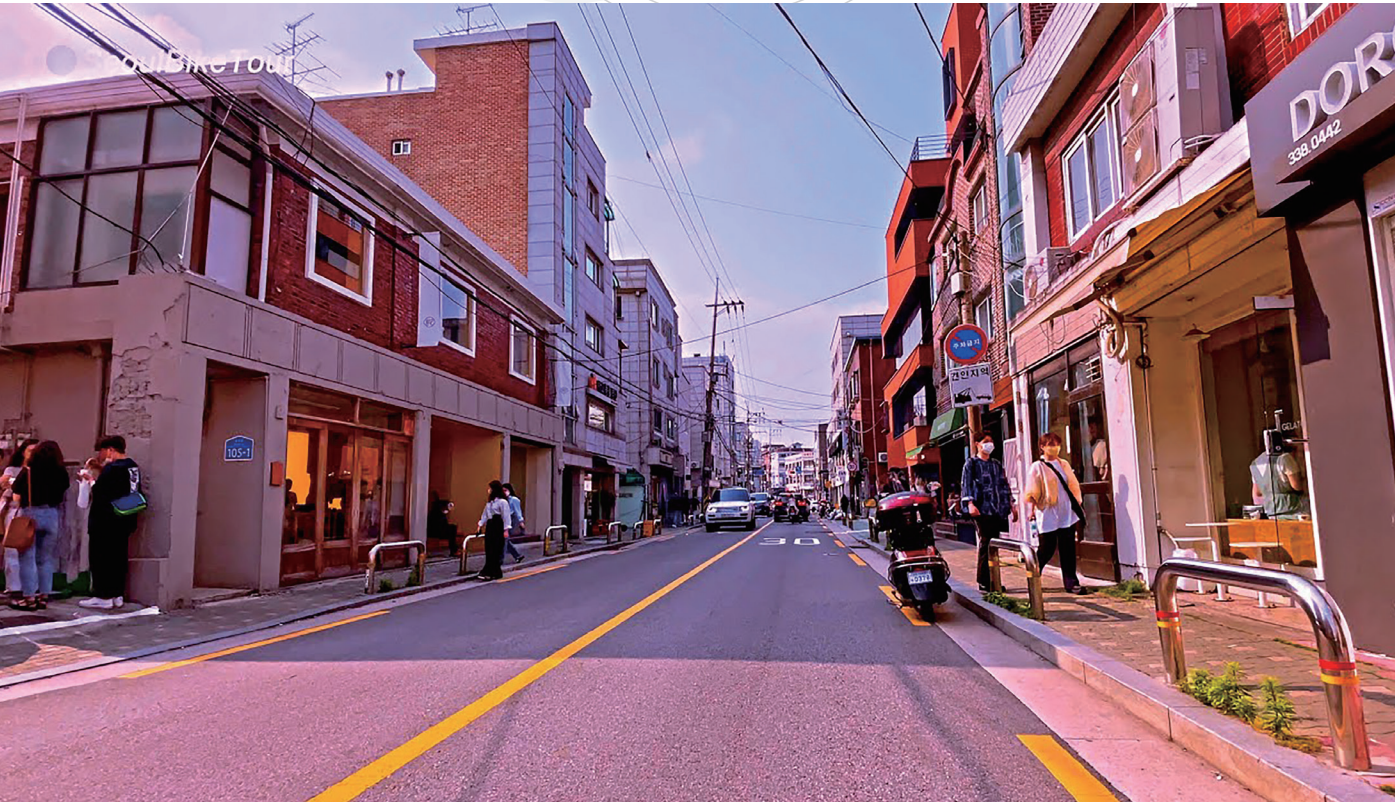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골목길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망원한강길은 주변에 망원시장, 망리단길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먹거리와 마실거리도 다채로운 곳이다.



A 망리단길

서울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힙스터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진 망리단길과 연결된다. 트렌디한 소품 가게부터 개성 있는 가게들과 맛집, 카페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주소: 망원동 403-7

망리단길
©따름이투어



망원시장 추천 먹거리



홍두깨 손칼국수

기본 메뉴인 손칼국수부터 손수제비, 옛날손짜장 등 정겨운 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 손으로 직접 반죽한 면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



교동 달강정

식어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튀김옷과 매콤달콤 양념이 매력. 매운맛과 안매운맛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닭강정과 새우강정을 섞어서도 주문 가능.



무침프로젝트 흥어무침

오독오독 살아있는 식감의 삭하지 않은 흥어를 사용하여 흥어 특유의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흥어와 함께 미나리, 도라지, 깻잎 등의 채소와 특제소스 포장 가능. 막걸리 종류도 다양.

C 망원한강공원

서울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힙스터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진 망리단길과 연결된다. 트렌디한 소품 가게부터 개성 있는 가게들과 맛집, 카페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주소: 마포나루길 467



망원시장 입구

B 망원시장

망원시장은 다채로운 먹거리로 사랑받는 곳이다. 가격 정찰제, 카드결제 시스템 등 재래시장 현대화의 성공 케이스로 주목받는 곳으로 시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던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며 마포구의 명소로 거듭났다. 시장 안에 자리한 '카페엠(Cafe M)'에서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장바구니도 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주소: 포은로8길 14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자연스레 인파에 휩쓸려 망원시장으로 향하게 되지요. 기차길처럼 길게 늘어진 시장길 양쪽으로 팔고 있는 물건들을 구경하다 보면 이미 양손에 간식거리를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망원시장을 한 블럭만 벗어나면 바로 망리단길이 나오는데 아기자기한 소호 가게들과 드립커피집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TS서울본부 박정호 부장



망원한강공원



하늘노을길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상암은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있어 더욱 멋진 곳이다. 노을이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암 하늘노을길에서 여유를 느껴보자.



“하늘공원 초입부터 맹꽂이 차를 타고 편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시그니처가 된 지그재그 계단을 한걸음씩 올라가면서 보는 정취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강을 낀 일몰과 서울 야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장소로 사계절 모두 좋은 곳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억새가 한창인 가을 하늘공원을 추천합니다”

하늘공원

D 하늘공원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공원, 하늘공원은 생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98m의 높이로 꽤 오랜 시간 통나무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높이가 오를수록 환히 내려다보이는 도시와 한강의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다. 정상에 오르면 너른 억새밭이 펼쳐지며 공원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커다란 바람개비의 모습도 이색적이다.

주소, 하늘공원로 95



TS서울본부 박정훈 부장



한국영상자료원

F

문화비축기지

E

하늘공원

D

E 문화비축기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옆에 자리한 문화비축기지는 석유비축기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탄생한 곳이다. 축구장 22개 크기의 넓은 부지에 6개의 탱크와 마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각 탱크를 공연장과 강의실로 변신시켜 강연, 전시, 공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소, 종산로 87



문화비축기지

한국영상자료원

F 한국영상자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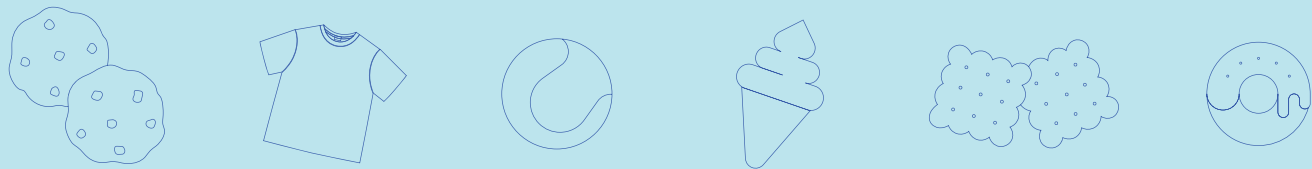
평소 한국 영화를 즐겨 본다면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영상과 시나리오, 포스터 등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곳으로 영화 제작과정에 포함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 1층에는 한국영화박물관이 자리하여 한국 영화의 1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주소, 월드컵북로 400



SEE

사장님이 없어요!



인기를 유인하는 ‘무인’ 매장

글. 신나라 참고. 한국소비자원, Axis Korea

카페와 밀키트 샵, 편의점과 사진관, 세탁소 등

점원도 점주도 보이지 않는 무인 매장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주인 없는 가게’의 확장, 무인 매장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무인매장 이용경험이 있다.

91%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언택트’라는 용어도 일상화 되었고,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일상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무인 상점이 나타나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키오스크부터 우리에게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보안 솔루션 기업 액시스 커뮤니케이션즈가 18세~90세 남성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무인 매장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무인 매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전혀 없는 감염병 유행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무인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인

식하는 것은 물론, 무인 매장도 매장 운영 형태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무인 매장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경향도 관찰할 수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현대 내 입점된 무인매장의 경우, 방문객의 85%가 30대 이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키오스크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이 비대면 거래를 대면 거래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30~40대가 60% 이상의 비대면 선호 비율을 보인데 비해 20대는 비대면 선호도가 75%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20대는 물론 성장기에 ‘비대면 시대’를 거친 10대 청소년들 역시 사람을 마주하지 않는 무인 상점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무인편의점
©GS리테일





인생네컷 외부
©엘케이벤처스



더현대서울 언커먼스토어PLAY
©현대백화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 무인 매장,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이용하는 무인 사진관의 유행을 시작으로 무인 면접 스튜디오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대면 면접을 대체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화상 면접, AI면접은 감염병의 기세가 꺾인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면접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IT,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비대면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면접에 만전을 기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나 영상의 화질, 조명은 물론 음향 장비도 신경 써야 하고, 주변에 과도한 소음이 없도록 적절한 환경도 필요하다. 이런 취준생들을 위한 무인 면접 스튜디오도 늘고 있다. 무인 면접 스튜디오는 주변의 방해 없이 스튜디오 공간

을 이용할 수 있어 면접은 물론 회의를 진행할 때나, 영상으로 진행되는 팬 행사 등에 참여할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인 테니스장과 재료와 설명서만 놓인 무인 공방, 원하는 대로 꽃을 고르고 직접 포장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무인 꽃집도 나타났다. 학생들은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을 스터디 카페로 활용한다. 무인 테니스장에서 퇴근 후 늦은 시간이나 꼭두새벽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도 있는 한편, 무인 빈티지샵에서 마음껏 옷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색다른 쇼핑 경험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 타인보다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경험

무인 매장을 더 선호하는 고객들은 직원이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무인 매장이 더 편하다고 답한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고르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는 것을 간섭으로 감각하고, 매장에서 일어나는 방문 경험, 구매 경험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심리 전문가는 현대의 소비자에게 매장은 사교를 위한 공간이 아니기에, 낯선 타인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불필요하게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방문한 곳에서 목적과 관계가 적은 경험은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무인 매장은 점주들에게는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상품의 재고나 재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상 매장을 훨씬 길게 운영해도 점주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원할 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무인 매장은 운영상의 효율 향상을 넘어, 주제적인 공간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 우리는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다원화된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효율성'에 대한 현

대인의 까다로운 기준은 고객이 기존의 매장이 제공하던 체계화된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구성해 보다 주도적인 구매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비롯해 온갖 무인 매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무인의 세계가 이미 이렇게 가까이 있다. 사람이 없는 가게, 무인 매장에서는 직원이 사라진 대신 한층 개성 있고, 주도적인 개인이 만들어진다. **TS**

SPACE

EXPERIENCE

교통사고 이후 마음 챙김, 어떻게 해야 할까?

글. 김민경 당근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또 하나의 나, 감정에게」저자

교통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두근거림이나 민감한 몸의 반응이 지속되면 불안에 우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있어도 몸은 기억한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이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과 비슷한 색상의 차만 봐도 깜빡깜빡 놀라고 운전할 엄두를 내지 못해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느라 심신이 지친다고 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는 생각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어나기 일쑤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사건을 겪은 후에 A씨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겨내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생각과는 달리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속담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몸은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불안장애, 마음 챙김은 필수

이런 현상은 우리의 기억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외현기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크게 놀라고, 불안하고, 떨었던 경험은 머리로 이해하는 기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일종의 절차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려고 마음먹고 길을 나섰는데 가해 차량과 비슷한 색상의 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몸이 얼어붙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몸이 사고 당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두근거림이나 민감한 몸의 반응이 지속되면 고통스러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불안감과 우울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마음 챙김 방법'을 반복한다면 교통사고 이후의 불안을 점차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TS**

그라운딩 기법

첫 번째는 두근거림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면서 '나는 지금 안전하게 땅을 잘 딛고 앉아있다'라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라운딩(grounding) 기법이라고 하는데,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몸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증상이 악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체가 안전하게 중심을 잘 잡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비 포옹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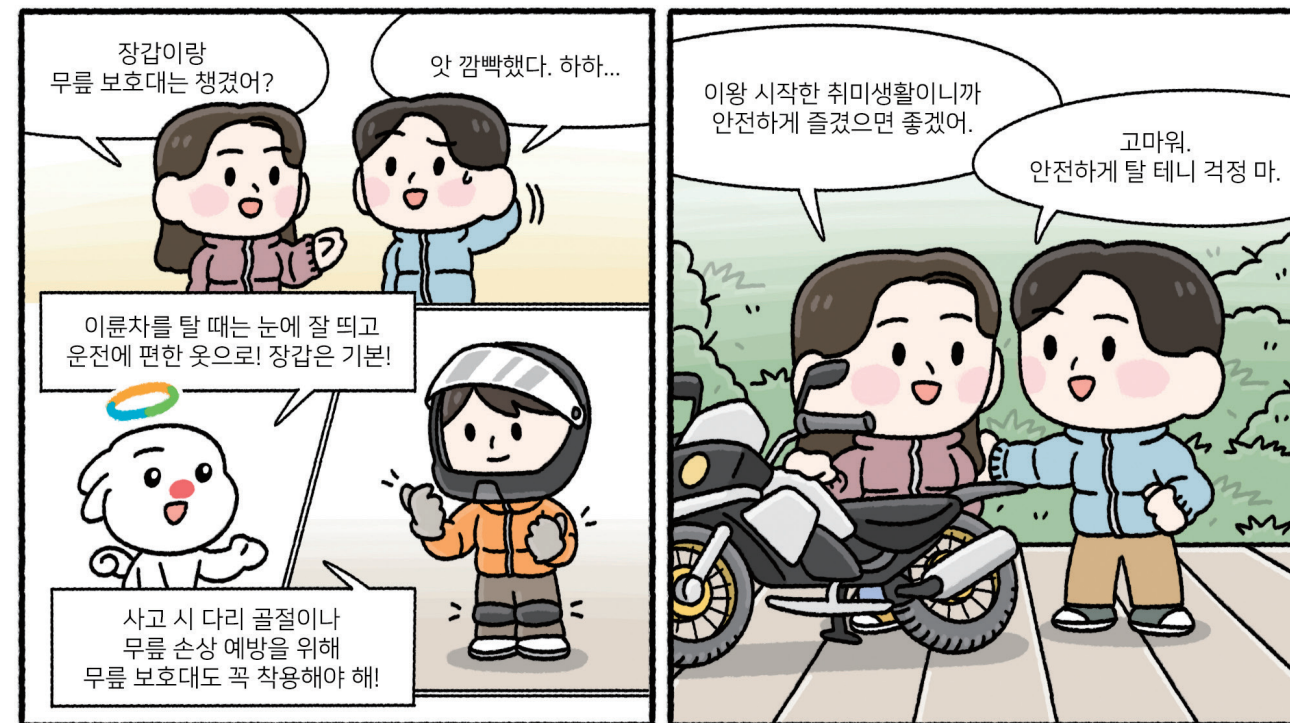
두 번째는 스스로 안정을 찾는 기법입니다. '나비안정화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양손을 교차해서 손바닥을 펼친 다음 양쪽 쇄골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양손을 교차로 두들깁니다. 이때 보이는 손바닥의 모습이 마치 나비처럼 보이는데요, 스스로 껴안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양쪽으로 자극을 주면 불안하거나 부정적 생각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손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나는 현재 안전하다'라고 떠올리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불안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들이쉬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내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쉬는 호흡을 하는 동안 몸을 이완시키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길게 심호흡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정도의 비율이 좋습니다.

나만의 금고에 보관하기

마지막으로 불안한 마음과 함께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에는 '나만의 금고에 보관하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평소보다 온갖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다친 몸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고민해봐야 당장 답을 찾기 어려운 막연한 걱정들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나만의 금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 금고는 오직 나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금고라서 내가 원할 때만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만날 때만 그 금고를 열어서 마음을 확인하자!' 라고 규칙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륜차 승차시 준비사항

카툰 에디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하고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해야 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운데다, 정지하거나 회전할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매우 위험해요.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승차 전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적색 점멸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❶ 일시정지 후 서행하세요.
- ❷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세요.
- ❸ 천천히 서행하며 통과하세요.
- ❹ 그냥 직진하세요.

기간 2024년 2월 28일(수) ~ 2024년 3월 18일(월)

이벤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5명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 시 별도 문자 송부)

참여방법 ① 웹진에서 참여하기 tsmagazine.co.kr
② 아래 QR코드 연결해 참여하기

*문의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내 자동차에 튜닝을 한다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스타일을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는 자동차 튜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 독자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정리. 편집실



옛날 아날로그 계기판을
최신 자동차의 최고사양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꿔서
운전하는 맛을 느끼고 싶어요!

- 유화○



아이가 더 자라기 전 부모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데 숙소를미리 예약하고,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우리 차를 **캠핑카**로
튜닝 한다면 가족만의 단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동력 좋도록 내 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튜닝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싶어요.

- 배순○



10년도 넘은 첫 차를 아직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 시절 이리
박고 저리 박아 흠집이 많이 난
휠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어요.

- 김대○



캠핑카로 전국일주를 하는 것
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자동차 튜닝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기회가 일찍 열릴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하여 멋지고
인락한 '바퀴달린 집'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 김광○



요즘 눈 오고 우박 떨어지고
비 오고 미세먼지에 흠먼지,
도로의 까만 얼음들,
새똥까지... 세차를 매번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서 세게
문지르다 보면 흠집도 생기고
요. 무광 래핑이나 **보호 래핑**을
해서 자동차 외관 관리를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요.

- 송원○



지금의 현대적인 디지털
감성의 카오디오보다는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카세트테이프나 CD 재생이
가능한 **카오디오**로 튜닝해서
노래를 듣고 싶어요.

- 이종○



자동차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앉아있는 부분인 **시트와 내부**
인테리어를 튜닝하면 자동차를
새로 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

1+2월호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30명

박찬○6392	유인○3961	김지○1107
박진○2059	장세○2913	배순○4565
박경○8873	허노○0559	송원○6875
이창○0525	민성○5789	이유○8947
김성○6131	정재○2585	백난○3319
이종○0685	정윤○3512	김제○8573
황은○4565	김현○3465	이아○2368
김대○5387	김연○0472	김광○8402
유화○4950	홍인○8585	이정○7900
나희○7132	박채○0752	이대○2816

*이름 두 글자와 휴대전화 뒤 네 자리로 표시했습니다.
상품지급일 : 2월 28일

*문의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S 매거진과 함께 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TS 매거진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TS 매거진을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초성퀴즈!

문제를 읽고 네모 칸에 들어있는 초성을 참고하여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TS 매거진을 만들기 위한 독자후기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구글폼에
퀴즈 정답(2개)과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참여기간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일

2024년 3월 28일

(총 10명 추첨, 순차적 배송 시작)

당첨자 발표

3+4월호 <TS 퀴즈> 코너 페이지

당첨선물

정답자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

(퀴즈 : 배달의민족 모바일금액권 1만원)

*문의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당첨자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로 표시

김○○ 5243 배○○ 3731 이○○ 1297

김○○ 2076 오○○ 0075 정○○ 3450

김○○ 8580 장○○ 3506 이○○ 5205

장○○ 7033 고○○ 7993 정○○ 0305

이○○ 2972 강○○ 4565 구○○ 2124

정○○ 3867 김○○ 7636 이○○ 1512

유○○ 7845 성○○ 3221

Q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 준공식을 개최한 곳으로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와 신규 튜닝 항목 개발, 튜닝 자동차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TS 포커스> 코너

E L O Z 7 S O

Q2.

이륜차 사고 시 다리 골절이나 무릎 손상 예방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HINT

<TS 튜> 코너

모 리 버 헝 드



3/31까지 TS매거진 1+2월호 독자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 구독 신청/취소,
주소 변경 신청
(문의 02.335.7636)



횡단보도 주행금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의 인도, 횡단보도 주행을
삼가주세요!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륜차 주행 중 통화 및 휴대전화
조작은 전방주시율 저하로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무리한 운전금지

갑자기 끼어들거나
무리하게 과속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수칙은?

이륜차 주행 중 유의해야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아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